

KB금융,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 전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캠페인'

KB금융그룹은 15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희망 2020 나눔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 10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KB금융 윤종규 회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이 참석했다.

'희망 2020 나눔캠페인'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성금 모금 캠페인이다. KB금융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20여년동안 계속 참여해 오고 있으며, 총 누적 기부액은 1210억원에 달한다.

윤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KB금융은 그룹의 미션인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왼쪽)이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포즈를 취했다. /KB금융

탕으로 사회 구성원과 함께 희망을 나누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새희망 갈구하는 국민의 박수



기지 수첩

석 대 성
(정치경제부)

"이제 그만하니까 그게 좋아서 박수칠 거야."

그들이 치겠다박수는 응원 이 아니었다. 그들이 말한 박수는 지난 4년간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이들이 물러남에 따라 새 희망을 갈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의회의 법안처리율이 15일 기준 32.8%를 기록했다. 17대(50.31%), 18대(44.4%), 19대(41.74%)를 모두 크게 하회하며 역대 최악의 성과를 가져왔다.

여야는 특히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대립하며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왔다.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본연의 임무는 물리적 충돌과 고소·고발을 남발로 가려졌다. 날마다 언급한 '국민의 뜻'은 누구의 뜻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타협과 협상도 오래 전 얘기다. 집권여당은 범여권과 공조해 제1야당 동의없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보수권은 의회정치를 스스로 등지고 광장을 떠돌며 같은 비난만 반복하기에 나섰다.

청와대 출신 인사의 선거 출마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한과 만큼 차갑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청와대 경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40명을 돌파했다. 아직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은 이들을 합하면 60~70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내미는 '청와대 출신'이란 명함은 과연 국민에게 어떤 작용을 할까. 그 명함을 받은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유권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간의 과오나 성과에 대한 평가는 4월 15일 국민이 말할 것이다. /bigstar@metroseoul.co.kr

KT&G장학재단 '산불 피해' 강원도 고성에 도서관 재건립 후원

KT&G장학재단은 지난 14일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의 한 도서관 재건립을 지원하고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 고성 지역의 지역도서관인 '빨간머리 언의 작은 책마루'는 지난해 4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책 3000여권과 전체 시설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도서관은 2011년부터 지역 주민인 박영숙씨가 자비를 들여 운영해 오던 곳으로 마을 어린이들의 독서공간이자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되며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이 소식을 접한 KT&G장학재단은 도서관 재건립 비용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달 초 열람실과 커뮤니티실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주택을 개조해 사용했던 기존과 달리 전용 건물이 지어졌으며, 도서와 책상 등의 비품도 새로 마련됐다.

KT&G장학재단 관계자는 "대형 화재로 배움의 터전을 잃은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서관 재건립 사업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이들에



지난 14일 개관식에서 심영아 KT&G사회공헌부장(왼쪽)과 박영숙 도서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G

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오늘의 운세 1월 16일 (음 12월 22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양보와 타협으로 일을 처리하라. 48년생 천국에 가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60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이를 경계. 72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걸잡을 수 없이 커진다. 84년생 원숭이띠와의 거래는 무난하다.	말 42년생 해결의 기미가 보이나 적극적으로. 54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6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비롯된다. 78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90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
소 37년생 친구 방문안 갈 일이 있다. 49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61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인데 누가 까마귀인가. 73년생 뜻하지 않는 행운에 기분이 좋은 날. 85년생 헤어짐에 슬퍼 마라.	양 43년생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다. 55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67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79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91년생 뜻밖의 선물로 즐겁다.
호랑이 38년생 질약과 구두쇠는 본질이 다르다. 50년생 근거 없는 칭찬을 남발하지 마라. 62년생 아저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오니 주의. 74년생 자식에게 좋은 소식이 오니 기쁘다. 86년생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자기분석을 해 보라.	원숭이 44년생 고집을 부려 봐도 소용이 없다. 56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6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 80년생 문제가 어려워도 잘 풀어나간다. 92년생 꿈을 이룰 계기가 온다.
토끼 39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51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63년생 히로아역을 얼굴에 나타내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75년생 마음에 드는 아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 87년생 질서 있는 상대라면 포용.	닭 45년생 버릴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 5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69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81년생 보라색이 행운을 주니 소품이라도 간직. 93년생 가뭄에 비 오듯 어려운 일이 해결.
뱀 40년생 금전 문제로 가족 간의 불화가 예상된다. 52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들어온다. 64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프다. 76년생 약간의 먹구름뿐 폭풍은 오지 않는다. 88년생 투자는 신중히 고려해 보자.	개 46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 58년생 원하는 일은 언제나 너무 멀리 있다. 70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82년생 비밀 언덕이 필요한 하루. 94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데.
돼지 41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 53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65년생 중요한 일은 행동으로. 77년생 여유 있게 영화 한 편 보기 좋은 날. 89년생 준비가 필요하니 섣부른 시작은 금물.	돼지 47년생 낙숫물에 비위가 풀리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 59년생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것은 자신의 도끼. 71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하다. 83년생 심 내뿜은 체증이 해소된다. 95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과 성실함으로 극복.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9	8					3	
	7	2	9	3				
8	5		7		3	4		
					9	1		
7	2		4		8	5		
	4	7	6	5				
	3		7				2	
					1			

	5			1		8	2	
3						5	9	
	1		3	9				
		3			6		7	
9		2			5			
	2		6	4				
6	4	7			3		8	
	3		9				2	

스도쿠 정답

8	9	1	2	7	5	8	6	
7	2	5	8	6	3	9	1	
8	6	1	5	9	1	7	2	
9	5	8	6	7	4	1	3	
1	6	2	8	5	9	7		
2	7	9	1	6	5	8		
1	8	9	7	6	2	4	5	
5	2	3	1	8	7	6	9	
6	3	7	9	2	8	1	5	

문제 제공= **보뉴스**

김상희의四季

경리는 편재보다는 정재에게

"사람 쓰는 게 어려운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당한 느낌이에요." 헛헛한 웃음을 짓는 사람은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경리를 맡았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몇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손실 처리했다.

가공식품 도매업을 하는데 업체가 커지면서 직원도 늘어났다. 경영자들은 항상 사람을 쓰는 게 고민이다. 적재적소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횡령 사고가 난 후에 수습한다 해도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런 경우가 되풀이된다면 적자 경영에 결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공금을 빼돌린 직원의 사주를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팔자에 뚜렷한 편재가 보였다. 편재 사주는 자기 수익에 대한 계산이 빠르다. 이자에 밝고 큰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편재 중에서 일부는 남의 돈에 손대는 것도 꺼리지 않는데 그 직원이 바로 그랬다.

이런 구조는 경리업무를 맡기면 위험하다. 상관 사주는 남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혹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 그 사람에게 영업 파트를 맡기면 좋은 성과를 올린다.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업무에는 식신 사주가 알맞다. 식신 사주는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게 어떤 것인지 잘 짚어낸다.

어떤 대상에 관해 탐구하기를 즐기고 무언가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 적합하다. 경리업무를 맡기려면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사주가 좋다. 그런 사주로는 정재 사주를 들 수 있다. 정재 사주인 사람은 하나하나 치밀하게 챙기는 성격이다.

게다가 남의 돈이나 큰돈에 눈을 돌리지 않아서 경리업무에는 어울리는 사주이다. 업체가 크지 않다고 해도 모든 직원의 사주를 알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땐 중요 업무를 맡길 직원 사주만 알아봐도 큰 화를 다소 피할 수 있다. 특히나 핵심 분야에 쓸 사람은 고민이 따르기 마련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6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9호